2주차 보고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오늘 강의에서는 사순절의 둘째요절로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셨다. 현재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은혜를 온전히 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메시지에도 말씀하셨듯 우리는 이러한 사순절 기간, 코로나가 성행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기도와 참회를 통해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한다. 또한 이웃을 위해 베풀 수 있는 사랑을 고민해보아야 한다. 이윽고 한동의 가치를 다시금 제고시켜주시는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이는 나를 왜 이 학교로 보내셨는지에 다시금 고민을 해보게 만들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배워서 남주자…. 이렇게 거창하고 대단한 슬로건들이 그냥 무늬이기만 하지는 않는지…. 이웃 사랑이 얼마나 내 맘에 존재하는지… 내가 다하는 열심이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돌이켜보면 한동으로 올 때에도 주님이 진정 주 된 삶을 살겠다고 서원하고 왔는데도 정작 내가 다하는 노력의 근간은 나의 명예와 성공을 위함이었다. 배워서 남주자가 아닌 배워서 남주냐… why not change the world가 아닌 why not develop yourself라는 슬로건으로 나를 맞추어 간 것이다. 열심히 배우고 나를 계발하는 것은 학생으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덕망이지만, 그것이 향하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세태가 많이 어렵다. 코로나 여파로 경제도 휘청이고 소상공인들은 당장의 수입이 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구에는 인력이 부족해 여기저기 모금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세태 속에서 과연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한동인은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일까

사순절의 정의를 살펴보니 ‘부활절 전까지 여섯 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 사순절 기간 동안은 성도는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깊은 명상과 경건의 생활을 통해 수난을 걸어가신 예수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해야한다’고 한다. 한동의 자랑스러운 슬로건을 지키기 위해,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와 기도를 통한 자기 자신이 온전히 주를 향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사랑으로 충전될 때 비로소 이웃을 향해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태에서 우리는 더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을 갈구해야한다. 사순절 첫째 요절인 시편 91편 15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등장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주께서는 우리가 간구하시면 들어주신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충만케되어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한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질병과 재난이 만연해있는 이러한 사순절 기간동안 온전히 주 안에서 은혜를 입는 모든 한동인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